



담이 큰 사람과 쓸개 없는 동물



장철봉
 미국 Rose Slauson Animal Hospital 원장,
 국제수의침구사협회 공인수의침구사
 cbchangdvm@gmail.com

흔히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거나 겁없는 언동을 하는 사람을 ‘담이 큰 사람’이라고 하고 실없는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 순발력이나 언행이 쓸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란 표현이다. 사람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동물들은 쓸개가 있다. 그러나 타고날 때 부터 쓸개가 없는 동물이 있다. 쓸개가 없는 동물로는 말, 사슴, 낙타, 코끼리 등과 같이 먹이를 수시로 섭취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초식동물이 대부분이다. 동물에 따라 쓸개가 왜 있고 없는지를 규명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음식섭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먹이를 소화하는 필요성에 따라 진화되어 쓸개가 커졌거나 또는 퇴화되어 몸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쓸개주머니(담낭)에는 쓸개즙(담즙)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간에서 생성한다. 담즙은 지방을 효소하는 담즙염이 그 성분이다. 이 담즙염은 지방을 유화시키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지방소화효소인 리파아제의 작용을 촉진시킨다. 즉 쓸개즙은 지방소화효소제일 뿐이다. 창자에 음식이 있으면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은 창자로 이동하여 창자에 있는 음식을 소화한다. 그러나 창자에 음식이 없으면 담즙은 간에서 창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간 옆에 있는 담낭으로 이동되어 창자에 음식이 들어 올 때 까지 저장된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하여 고양이와 개와 같이 먹이를 섭취하는 간격이 있는 동물들은 창자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을 보관해두는 저장소가 필요해 담낭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풀을 뜯는 사슴이나 말, 특히 야생마들은 항시 먹기 때문에 창자가 비어있는 경우가 더물다. 그러기에 창자에

있는 음식을 소화해주는 담즙이 계속 소모해 담즙을 일시 저장하는 담낭이 필요없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담낭이 퇴화되어 쓸개없는 동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대의학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쓸개즙은 지방 소화 효소제일 뿐이고 쓸개주머니는 쓸개즙의 저장소일 뿐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쓸개주머니는 사지의 움직임을 순조롭게 하고 쓸개즙(특히 곰의 쓸개즙을 건조한 웅담)은 혈과 기의 순환을 도와 몸이 잘 활동하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러기에 한의학에 길들여진 한인들에게 한의학 이론에 따라 어정쩡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쓸개 빠진 사람인 것이다. 그들에게 사슴은 쓸개가 없다고 알려주면 “그것봐라, 쓸개가 없기 때문에 사슴은 두리번거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슴의 습성을 잘 못알고 하는 말이다. 사슴이 두리번 거리는 것은 포식자로부터 위험을 피할 마땅한 방향을 빨리 찾기 위한 예민함이지 어정쩡한 습관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찾으면 순발력있게 뛰어간다. 우리 용기있고 당찬 이를 보고 ‘담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 한의학 이론에 의거하면 옳은 표현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에 의하면 담이 크다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음식을 미련스럽게 많이 먹게되면,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시킬 담즙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많은 담즙을 저장하려면 담이 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 담이 큰 사람은 바로 식사량이 많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에도 관점에 따라 의견이 정반대가 될 수 있으니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동물을 치료하는 필자로서는 치료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